

“한승택 부러웠다...1군 데뷔 차근차근 준비해야죠”

KIA 막내 포수 신범수 애리조나 교육리그를 마치며



추신수와 상대 소중한 경험
교육리그 통해 자신감 생겨

높은 ‘프로의 벽’ 실감
최원준 등 1군 데뷔에 조금
‘가을야구’ 보며 이 악물어
멀리 보고 하나씩 준비할 것

길고 알찬 시즌을 보낸 '2016 애리조나 교육리그' 선수단이 귀국했다.

지난달 19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로 솔트 리버 필드로 떠났던 교육리그 선수단이 16일 밤 광주로 복귀했다.

정희열 2군 감독이 지휘한 이번 교육리그에는 부활을 노리는 손영민, '예비역'으로 돌아온 손동우·김중훈·이경록, 프로에서의 정진했던 시간을 보낸 '고졸 루키' 김현준·정동현·신범수·김규성·류승현 등 14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SK와 연합팀을 이룬 KIA는 미국 10개팀과 경기를 하면서 내년 시즌을 미리 엿봤다.

1998년생 막내 포수 신범수에게는 좌충우돌 흘러간 프로 데뷔 시즌을 돌아보고 2017시즌의 꿈을 끈 특별한 시간이었다. 첫 교육리그에 대한 막내의 소감은 “재미있었다”였다.

신범수는 “미국에서도 잘한다고 하는



애리조나 교육리그에 참여한 KIA·SK 연합팀 선수들이 지난 15일 일정이 끝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선수들도 많이 왔고, 좋은 투수들하고도 대결을 해봤다. 결과를 떠나서 대결을 해본 자체가 재미있었다. 빠른 주자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다. 확실히 한국 선수들보다 빠르고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주자가 나가도 잡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메이저리거 ‘추추 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를 만난 것도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이다. 지난 달 29일 원발 골절상으로 재활을 하고 있던 추신수는 교육리그 경기에서 실전 점검을 했다. 신범수는 박상욱과 배터리를 이뤄 추신수를 상대했다.

신범수는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보니 반가웠다. 대결을 하면서 확실히 좋은 선수라는 것을 느꼈다. (추신수가) 홈런을 때렸는데 대단히 좋은 공이 들어왔는데 그걸 홈런으로 연결

했다. 정말 좋은 선수였다”고 돌아왔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떠났던 교육리그. 신범수는 어느 정도 발전 이룬 기분이다. 하지만 프로에서의 첫 시즌이 끝났다는 것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신범수는 “시즌이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작년에 마무리 캠프 간지 얼마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시간이 빠르다. 고등학교 후배 (김)석환이가 벌써 후배로 들어온다”며 “확실히 프로의 벽은 높았다. 마음만 급했다. 처음에는 무자정 열심히 하자는 생각만 했는데 뜻대로 잘 안됐다. 생각을 조금 바꿨다. 좀 더 차분하게 멀리 보면서 하나 하나 만들어가다 보면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것 같다. 올 시즌에는 만족하지 못 하지만 조금씩을 즐기고 투수랑 마음

맞추는 것을 많이 연습하면서 마음가짐을 바꾼 것은 만족한다”고 웃었다.

올 시즌 최원준·이진영·정동현·전상현 등 동기들이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칼을 갈았다”는 신범수는 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진행되면서 잠도 마다하면서 꿈의 무대를 지켜봤다.

신범수는 “새벽에 중계로 경기를 봤다.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되고 정말 재미있었다. 경기를 뛰는 선배들이 많이 부럽기도 했고, 나도 나중에 저런 무대에서 경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한)승택이 형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고 그랬던 것 같다. 멋있다고 연락도 하고 그랬다.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커쇼의 커쇼에 의한 커쇼를 위한 경기

시카고전 7이닝 무실점 완벽투

LA 1-0 승...NLCS 1승1패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에이스 선발 투수 클레이튼 커쇼(28)의 눈부신 호투에 힘입어 시카고 컵스를 꺾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다저스는 1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NLCS 2차전에서 컵스를 1-0으로 제압했다.

전날 1차전에서 패한 다저스는 이로써 7전4승제의 NLCS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다저스와 컵스의 선발 투수는 각각 클레이튼 커쇼, 카일 헨드릭스였다. 팽팽한 선발 투수전이 예고됐다.

커쇼는 전 세계 현역 최고의 투수다. 헨드릭스는 올해 정규시즌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선발 투수 가운데 평균자책점 1위를 (2.13) 기록했다.

커쇼는 이날까지 최근 열흘 사이에 4차례나 등판했다. 특히 지난 14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5차전에서 마무리 투수 노리과 1점 차 승리를 지켜냈다.

커쇼는 다저스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잦은 등판으로 인해 이날 경기를 앞두고는 그의 체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래도 커쇼는 커쇼였다.

그는 7이닝을 2피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 컵스의 강타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헨드릭스도 5.1이닝 3피안타(1피홈런) 4볼넷 5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커쇼의 빛에 가렸다.

/연합뉴스



다저스의 커쇼가 17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NLCS 2차전에서 컵스전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PGA 투어 정규대회

내년 10월 한국 개최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정규대회가 2017년 10월 한국에서 열린다.

PGA 투어와 대회 개최를 협의해온 CJ그룹은 2017년 10월 PGA 투어 정규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24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대회 공식 명칭은 'CJ컵@나인브릿지'다. PGA 투어 정규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기업으로 PGA 투어 대회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는 것은 현대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다. 현대차는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를 개최해오다 2017년부터 10년 동안 PGA투어 제네시스오픈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다.

CJ그룹 관계자는 “아직 대회 개최 정확한 날짜와 대회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24일 협약식에서 구체적인 일정 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회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CJ그룹이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는 만큼 경기도 여주의 해슬리 나인브릿지 또는 제주 서귀포시의 나인브릿지 골프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女프로농구 KDB생명, 광주대 우수진 지명

우수진(22·광주대 4년·사진)이 여자프로농구 KDB생명 유니폼을 입게 됐다.

우수진은 17일 서울 덕계호텔에서 열린 '2017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신입선수 선발 과정'에서 2라운드 2순위로 KDB생명에 지명됐다. 우수진을 비롯, 드래프트에 참여한 전국 26명의 선수 중 15명만이 구단 선택을 받았다.

우수진은 올 시즌 21경기에 출전, 경기당 평균 득점 15.5점, 리바운드 8.8개, 어시스트 1.5개를 기록하며 광주대의 여대부 4관왕 달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우수진은 “프로 지명을 앞두고 걱정도 많았는데 좋은 구단에 지명을 받아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 팀에서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의 선배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여자농구의 미래’로 불리는 분당경영고 3학년 박지수(18·195cm)는 전



체 1순위로 청주 국민은행 유니폼을 입었다.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박상준 전 명지대 감독과 배우 청소년 대표를 지낸 이수경씨의 딸인 박지수는 큰 키와 스피드, 운동 능력으로 박찬순, 정은순, 정선민 등 한국 여자농구의 계보를 이을 선수로 기대를 모으는 유망주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4년 7월에 이미 성인 국가대표로도 선발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승부조작 탐지 학술대회 개최 20~21일 한체대

스포츠 경기 기록과 통계에서 승부조작의 단서를 찾는 연구를 소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체대는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정책평가학회와 함께 20~21일 한국체대에서 ‘승부조작 탐지를 위한 통계적 접근’ 학술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데이터에 승부조작의 흔적이 남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근거한 접근이다. 한국체대 최창환 박사는 ‘10진법을 쓰는 데이터의 첫 자리 숫자는 1인 경우가 많다’는 벤포드 법칙을 이용해 승부조작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에서 1점을 위해 발

생하는 랠리, 태권도 경기에서 두 선수의 발차기 횟수, 야구에서 투수가 매 경기 기록한 볼넷·삼진 개수 등은 첫 자리에 1, 2 등 낮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배드민턴 국제대회 685경기를 분석한 결과 선수들의 랠리 횟수는 벤포드 법칙을 따르는데, 승부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최 박사의 설명이다.

최 박사는 “지금은 경찰의 금전 거래 내역 조사가 있어 승부조작을 확인 가능하다. 벤포드 법칙을 활용하면 일차적으로 승부조작 의심 사례를 걸러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